



공개서한 (6) 호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

저는 수십년을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 이민법무사와 나티 번역사와 JP 공증인으로 일해온 "스트라스필드 (호주닷컴) 이민 및 번역"의 황규상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참모총장님과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 협회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본 공개서한은 시드니의 본 "마이 라이프" 주간지에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번이 6회입니다. 1회는 2월 20일자 930호에, 2회는 2월 27일자 931호에, 3회는 3월 6일자 932호에, 4회는 3월 13일자 933호에, 5회는 3월 20일자 934호에 실렸습니다. 실린 페이지는 1회만 42-43 페이지이고 그 이후는 모두 24-25 페이지입니다.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이론" 메뉴에서 보셔도 되고 "마이 라이프" 주간지의 <http://mylifeweekly.com/data> 에서 각 호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지 이전 것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게 핵무기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독일이 가만히 있으면 비록 유대인이지만 핵 개발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 죽이지는 않겠지만 핵무기도 히틀러가 가지게 될 것이 변하고 그러면 히틀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 변하고 그러면 동료 유대인들이 모두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호주를 포함해서 전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한국에 공개 편지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냥 모른척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일본인들이 이 전자장파 무기로 전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 변하고 알게 되어도 이미 늦어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 변하고 그러면 제 자식 손주들을 포함해서 한민족은 모두 대대손이 이 변태한 일본인들의 완전 상노예로 살 것이 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세상에 알린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왜 제가? 영어로는 Why me?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마음이 움직임을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지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감지를 하게 된 것을 예네들이 알면 전자장파를 집중적으로 써서 "이름리스"라는 예네들 코드명 대로 거의 즉시 통찰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시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로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걸 알아내서 통찰력을 잃지 않고 이를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조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면 그걸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혹은 존재가 만든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다차원적이어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게 제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를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리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해서 이를 알아내고 그 후에 통찰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은 존재가 만든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다차원적이어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게 제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를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리고요.

제가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마을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 영화를 만든 천재는 이 전자장파 무기를 알고 만든 것입니다. 운동주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표현을 하고 싶어 숨은 의미가 들어 있는 "시"를 지었듯이.

그 영화에서 "반지"를 그 주인공 호빗 외에는 아무도 carry (지니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에 압도 당해서, 그리고 그 힘은 "눈"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기서 "눈"은 전자장파 무기를 예기하는 것이고 "반지"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알게 되어도 이를 알게 된 "통찰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전자장파를 그 반지 (통찰력)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쏘 대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 "호빗"이 될 수 있을까?

위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뛰어난 논리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논리적인 분석으로 잘 관찰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명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자장파 영향을 받는 "마인드" 밖에서 "마인드"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감지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자기 확신과 고집이 엄청 세야 합니다: 즉, 전자장파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엄청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자기 확신과 엄청 센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4.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자장파로 아무리 무기력하게 만들어도 이를 이기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5. 뛰어난 글 솜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전자장파에 의해 머리를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 글의 의미가 전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글이 마인드 영역의 머리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가 통제할 수 없는 하트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제가 위의 5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논리적 사고 능력: 세계적으로 유명한 MBA 코스에 입학하려면 일종의 입학 시험인 GMAT 라는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을 할 당시 제 GMAT 점수는 한국 거의 최고 점수였고 특히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quantitative part 는 제 점수가 톱 1%였습니다. 즉, 논리적 사고 능력이 전세계 최고 중의 하나로 점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시험에서, 그래서 호주 최고의 MBA 학교였던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내의 AGSM 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한글 "주요 이론" 메뉴에서 개시한 26면 글 (GMAT 점수 - 논리적 사고 능력) 에 실은 점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상 능력: 이런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상" 훈련을 엄청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명상"의 올바른 정의는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생각이 정지해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 때"입니다. 특히 목숨이 위험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객들 중에 명상의 대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명상'의 핵심인 '여기 현재 (here now)'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가지 전부터 즐겨 하던 것이 3층으로 되어 있던 저희 집 옥상에 가서 그 옥상을 둘러싼 허리 정도 높이의 난간 위를, 한뼘도 안되는 난간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뛰다니면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 매달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옥상 난간을 뛰어 다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잡으러 오고. 거기는 난간이 매우 넓어서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좀 더 커서는 매달 자전거. 자전거도 높은 공원에 끌고 올라가 손잡이가 내려오느라, 택시나 버스와 경쟁하는 것. 좁잡한 시장 안에서 밖에 내는 연탄재를 부수면서 달리고 많은 사람들을 스치면서 손잡이가 달리는 거. 급 정거하자 미끄러져서 버스 아래서 나온 적이 여러번. 땀을 안고 그 책 보면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등 다 조절하면서 수심킬로 떨어전 외가집 가는 거. 즉, 자전거 탈때도 생각하면 사고날 수 있으니 생각 정지. 이 두가지를 거의 매달 하면서 살았으니 어릴적부터 엄청난 상상 훈련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전도 모르게 명상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전거는 특히 중요한데,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도 그 실력은 그대로. 그리고 자전거 타면 자동차 없이 웬만하거 다 해결되고, 체력 유지에 최고이고,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전거 탈 때 전자장파 쓸 방법도 없고.

3. 자기 확인 및 고집: 저는 자기 확인이 엄청 강하고 고집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자기 확인은 어느 정도였나면,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 풀다가 책 맨 뒤의 답안지에 내 답이 틀렸다고 나오면, 내 답이 맞는데 이 답안지의 답이 잘못 인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답이 다 "다보탑"이 맞다고 하는데 저 혼자 "무명탑"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책을 찾아서 "무명탑"이 맞는 것을 선생님에게 가져가서 보여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집은 저는 "황"씨에 "웅"씨에 "곰솔머리"입니다. 이 세가 하나인 것인데도 고집이 세고 있는데 저는 이 세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다른 소리를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심년을.
4. 저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뻐들이 무기력하게 전자장파 엄청 쓰아줍니다. 끝 못 쓰게. 그러나, 아마도 앞에 설명 드린 '명상 능력', '자전거', '엄청난 자기 확인 및 고집' 등이 제 의지를 유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5. 그리고 제 글 쓰는 능력은 하늘에서 준 능력입니다. 그것도 영어로도 어떤 때는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번호사나 이민법무사가 평생 장관관원에서 성공해서 영주권 받아주는 것을 한 두 케이스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동안 수십명에게 장관관원으로 영주권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유는 이 글 능력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가슴에 뭐가 확 올라오니까. 비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트에서 올라오니까. 어찌든 그래서 이 전자장파 무기를 제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글로 쓸로 써서 이해가 가게끔 전달할 능력이 있으니까. 전자장파 영향 받아 혼미한 머리로는 아니라 전자장파 영향권 밖에 있는 가슴을 찔러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쓸 능력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능력도 '명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글이 나오는 '소스'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내 안의 BEING 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그라운드 제로" 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이해하시면 그동안 이상 기온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여기 자기 산발에, 열풍에, 한파가 났던 것도 제가 이전에 알렸던 것 때문에 그 때 깨어난 많은 사람들을 "이클립스 (통찰력을 일깨)" 하느라고 일킨 것이고 그거 가지고도 안되니까 가장 큰 "이클립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뿌려서 "록다운"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해 놓고 타겟 대상들에게 전자장파 열나게 쏘서 죽이거나 "이클립스" 시킨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때 보다 이 일본에들에게 더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지구'라고 할 수 있는 호주를 포함해서 여기 저기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이상 기온과 바이러스 판데믹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대책은?

저희 협회 웹 사이트 한글 "주요 이론" 게시판 17번 글 (이상 기온 - HAARP 복제판)에 나와 있듯이 이상 기온 무기는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HAARP 라는 시설 복제판이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 시설에서 기후 변화를 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일본에 있는 사실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거하기 힘들면 예뻐들이 잘 쓰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방법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즉, 티 안나게 하늘에서 집중적으로 쏘서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만약 한국이 이 하늘에서 쏘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를 강대국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판데믹? 지난번에 수천만명 죽었는데 이 일본에들이 이거 다시 일으키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로 수천만명 죽나 핵으로 수천만명 죽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현재 강대국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데믹이 다시 일어나면, 강대국들 중 누군가가 혹은 집단 합의에 의해 핵을 즉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 옆에 위치한 한국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핵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전에 이 일본 에들의 전자장파 무기를 무력화 시켜야 하는데 그 열세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장파 무기의 전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핸드폰", "인터넷"인데 그 중에 두개가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통한 전자장파 전달 방법을 찾아내서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한 전자장파 전달 방법을 찾아내서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핸드폰은 전세계에 애플과 삼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오너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요. 영예로는 faceless 한 "돈"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일본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전자장파 전달하는 방법만 찾아내서 차단 시킬 수 있어도 핵 사용 없이 이 일본에들의 전자장파 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 피해 없이 이 일본에들의 전자장파 무기로 부터 해방되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이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은 전자장파 무기를 사용한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이를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알려 드렸듯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회 구좌로 기부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제가 주로 일하는 Wentworth Point 도서관이나 Rhodes 도서관에 현찰로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저희 협회 구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 name: GOOD EM WAVES ASSOCIATION INCORPORATED
Bank: ANZ
BSB: 012401
Account number: 179204918
ANZ Swift Code (해외에서 송금시): ANZBAU3M

술에서 세상을 지배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누군지 몰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파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동시 임기 중에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준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인 이 일본에들이 적어도 이 지구를 수천년 이상 지배할 것이고 한국인은 대대 손은 완전 상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시드니 및 호주 교민 분들께,

제가 들도 보도 못한 것들로 영주권을 받아온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단, 스케일이 훨씬 크고 훨씬 더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제 주장이 믿음이 가면, 저희 협회에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상기 협회 은행 구좌로 기부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어 장비를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이기 때문에 물건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받고 물건들 그냥 드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에 기부금을 내시고 방어 장비도 받아 가시면 저희 협회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본인을 대신해서 물건들 확보해서 전세 드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구좌에 입금하는 것이 부담되시면 제가 주로 일하는 "웬트워스 포인트" 도서관에 오셔서 저희에게 현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시드니에서 황규상 배상 



공개서한 (7) 호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

저는 수심년을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 이민법무사와 나티 번역사와 JP 공증인으로 일해온 "스트라스필드 (호주닷컴) 이민 및 번역"의 황규상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좋은 전자장파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참모총장님과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 협회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진영승 국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님과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본 공개서한은 시드니의 본 "마이 라이프" 주간지에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번이 7회 (936호)입니다. 1회는 2월 20일자 930호에, 2회는 2월 27일자 931호에, 3회는 3월 6일자 932호에, 4회는 3월 13일자 933호에, 5회는 3월 20일자 934호에, 6회는 3월 27일자 935호에 실렸습니다. 실린 페이지는 1화만 42-43페이지이고 그 이후는 모두 24-25 페이지입니다.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이론" 메뉴에서 보셔도 되고 "마이 라이프" 주간지의 <http://mylifeweekly.com/data> 에서 각 호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연결되지 이전 것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is not an object to analyse, but a mystery to live" 한글로는 "인생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신비로운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인들의 전자장파 무기를 접하게 된 것은 신비로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수심년을 고생을 했지만 지난번 호에 말씀 드린대로 저 아니면 이를 밝혀낼 사람도 없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저 한테 이런 것이든 것이 차라리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것도 매우 신비로운 것이고 여러분들 전자장파 무기에 의해 무너질 때 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다시 저를 회복시켜서 저로 하여금 계속 알릴 수 있게 한 것도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의 주제는 "신비 (mystery)"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MBA 코스를 마칠 때인 1989년 말만 해도 한국인은 유학생이든 아니든 호주 영주권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대다수 교수 자리 보다 더 귀했던 것이 호주 영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호주의 회사가 고용을 한다고 스폰을 하는 일종의 "고용주 지원 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영주권 까지 만들어 주면서 고용할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럼 기존의 자리는 비어 있는 사람 고용하면 그만이지 번거롭게 비자까지 수속해 주면서 나를 고용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즉, 호주 회사에 새로운 코리안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내 자리를 내가 새로 만들어 호주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때 두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미국의 뉴욕 증권 시장에 "코리아 펀드"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미국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호주 증권 시장에 비슷한 호주판 "코리아 펀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을 보고 한국에서 호주에 부동산 투자 하는 것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국제 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을 가르쳤던 맥카리 은행의 수석 경제전문가 (Chief Economist) 이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 분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호주 증권 시장에 비슷한 호주판 "코리아 펀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관심이 없을 것인데 한국에서 호주로 부동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이에 관심이 있을만한 호주의 회사 3개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 회사 이름을.

그래서 이 세개 회사 전화번호 찾아내서 두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 학생들이 이력서를 수백통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전화 두군데 한 것입니다. 처음 전화 한곳은 국제부 부장을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고 담당

이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관심이 없었고, 두번째 전화한 곳에서는 국제부 부장을 연결해 주었는데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내일 아침에 시드니 오피스에 들르는데 그 분이 나를 보겠다고 합의 확인해서 30분 내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분이 저를 만나는데 관심이 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로 오라고 주소와 종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들고간 서면으로 된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읽어 보고 매우 만족해서 일종의 연구소인 개발 회사 사장과 두번째 인터뷰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후 두번째 인터뷰에서 저를 고용해서 이 프로젝트 하려면 제가 현재 학생 비자이니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호주 영주권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No problem.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무조건으로 고용 계약서를 받았습니니다. 호주 유학생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한 회사가 고용 오피스 빌딩, 큰 쇼퍼센터, 큰 공장 단지, 큰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의 매매와 렌트와 관리 등을 다루는 부동산 중개 및 관리 회사로서 영국에서 몇백년 전에 시작된 호주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존스 랑 우튼 (Jones Lang Wootton), 현재 이름은 존스 랑 라살 (Jones Lang LaSalle). 이 회사에 전세계 최초로 제가 "한국 부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수속이 시간이 걸리니까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일단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에 위치한 serviced office 에 오피스를 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문료나 서비스료를 받고 한 실적으로는 한국 화학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던 옛날 마포 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부동산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고 대한항공 한진 그룹을 위해서는 프랑스로 파리에 있는 대형 호텔에 대한 가치 감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한항공을 위해 대한항공이 들어가는 전세계 주요 도시에 10년에 걸쳐서 1년에 한개씩 대형 호텔을 구입해 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 호텔 하나당 예산이 미화 2억달러. 그래서 총 미화 20억 달러 프로젝트. 부동산 중개회사가 대개 파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데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혁신적인 컨셉. 사는 사람에게 중개료를 받고 적합한 부동산 찾아서 좋은 가격에 구입해 주는 서비스. 홍콩에서 온 "존스 랑 우튼" 중역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커피 마시다가 나온 아이디어. 대한항공 (한진그룹) 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이러한 컨셉으로 일할을 하도록 초창기 되었습니다. 3개 회사가 초청 되었는데 나머지 두개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들인 "살로만 브라더스 (Saloman Brothers)"와 "제이피 모건 (J.P. Morgan)". 이 은행들은 단지 부동산 부서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진짜 부동산 전문 회사인 우리가 가장 유리.

"존스 랑 우튼" 전세계 회장, 북미 지역 호텔 총 책임자, 유럽 호텔 총책임자, 아시아 퍼시픽 호텔 총 책임자, 4명 데리고 한진그룹에 가서 그당시 조종훈 회장님 첫째 아들 조양호 부사장님과 형제분들 및 한진 그룹 기획조정실 중역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한달 안에 답 온다고 했는데 무수히 갑자기 침묵과 경제 수석이 "재벌들 국내 유류 부동산 처분하라"고 해서 해외 부동산은 말도 못 꺼내게 분위기 바뀐. 조양호 부사장님께 전화했더니 곧 답 온다. 그리고 존스 랑 우튼의 아시아 본부가 홍콩 오피스 있는데 거기서 한국 부서는 홍콩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 그래서 존스 랑 우튼 전세계 컴퍼니에서 저 보고 홍콩에 가서 근무하라고 결정. 대한항공 큰 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홍콩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시드니에 후임자로 채용을 검토해 보고 회사에서 추천해준 한국분을 만나보고 승인.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오래 주재원 생활을 하였던 분.

이 대한항공 건으로 입찰했던 미국의 투자 은행인 '제이 피 모건 (J. P. Morgan)'의 한국인 부사장이 홍콩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하루는 함께 점심을 하려고 해서 간 곳이 세계적인 금융인 멤버들만 갈 수 있는 홍콩의 최고급 고층 건을 꼭대기에 있는 Banker's Club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과 점심하는 중에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아마도 이 일본인들이 제게 처음으로 전자장과 무기로 공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공격.

대한항공 (한진그룹) 에서 결국 아무런 답이 안오고 '조양호' 부사장은 다른 이슈로 한국에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용해 주었던 프랑스계 호주 분은 아시아 퍼시픽 파트너로 전세계에 가장 높은 지위였고 아직 매우 젊은 나이였는데 즉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예기나면, 미화 20억 달러 프로젝트이면 당당시에 한국 역사상 아마도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이면 이 일본인들이나 이 일본인들이 일정한 한국의 총독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한진그룹) 은 일본과 연결된 회사가 아니고 미국과 연결된 회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이 아닌 것은 모두 같이 버리고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일본인들의 전자장과 무기를 처음 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게 1990년에 일어난 일이나 35년 전입니다. 즉, 이 전자장과 무기가 35년 전 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완벽해 있었습니까? 이번에 빠져 나오지 못하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즉, 이 전자장과 무기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던 대한항공의 미화 20억 달러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유수한 금융인들만 갈 수 있는 홍콩의 Banker's Club 에서의 점심 식사, 전세계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온 '존스 랑 우튼' 한국 담당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은행인 '살로만 브라더스 (Salomon Brothers)'와 '제이피 모건 (J.P. Morgan)'과의 입찰 경쟁, 즉, 전세계를 지배하는 힘과 제가 연류가 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나치가 남겨진 재산과 테크놀로지를 물려 받아 숨어서 지배해 온 이 일본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전세계를 지배하는데 사용해온 무기는 '전자장'과 무기로 된 것입니다.

제가 '존스 랑 우튼'에 근무했고 거기서 한국 책임자로 있었던 증거는 저희 협회 웹 사이트 한글 '주요 이론' 게시판 28 번 글 (본 협회 회장의 '존스 랑 우튼' 시드니 및 홍콩 근무 관련 명함 및 책자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자장과 공격 받아서 망가지고 이혼 당하고 엄청 오랜 기간 고생을 했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저 아니면 이거 알아낼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 같고 알아내도 통찰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 같고 통찰력을 유지했다고 해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신비로웠던 것은 이 전자장과 공격 받아서 제가 무너질 때 마다 아주 최한 방법 으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다시 온전히 복구 시켜 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오래 전에 예견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때, 그 때는 예비고사 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고사 점수가 정확한 등수는 그 당시 그런 통계는 없어서 모르는데 전국 500위 안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서울대는 계열별로 뽑고 연고대는 과별로 뽑았습니다. 즉, 서울대로 가면 1학년 때 또다시 경쟁을 해서 2학년 때 과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별로 맘이 안들고. 몇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저자는 공부 잘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데인만이라는 소설을 읽고 공부 잘해서 학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매우 김우중 회장님이 멋있어 보였는데 그분이 연대 상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상대 학생들이 잘 논다고. 그래서 연대 경영학과를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대를 지원한 것은 '제' 생각이고 '알수 없는 힘'은 다른 이유로 저로 하여금 연대를 지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수 없는 힘'이 그것을 제게 입학시험 볼 때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연대 경영학과 입학 시험은 4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첫번째가 국어 그다음 두번째가 영어. 그리고 점심시간 후에 3번째가 수학 그다음 4번째가 사회. 국어 시험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두번째 과목인 영어 시험 보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5분인지 10분 내로 답을 다 쓰고 그냥 나오려다가 그래도 입학시험인데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에 힘들게 다시 보았는데 틀리게 답을 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은 고치고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은 점심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어지럽고 앞도 잘 안보인다고 높고 싶다고 해서 양호실을 찾아 갔는데 거기엔 침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박스사서 뛰어가고 저는 그 추운 겨울에 야외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끝나고 3번째 과목인 수학시험 보러 들어가야 하는 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지럽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학 시험을?

교실에 들어가니 문제지를 나눠주고 시험이 시작되어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서 그냥 머리를 책상에 폭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가 울려 퍼지면서 빛이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팔도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여러명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몸의 피가 다리에서 머리로 치솟으면서 머리가 흐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눈도 보이고 머리가 안개 같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 문제 없애 다 치르고 그 다음의 사회 시험도 매우 여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일종의 '종교 경험'입니다. 아버님이 오랫동안 장로교회 장로셨고 어머니가 권사셔서 그냥 교회 왔던 것만 했을 뿐이지 딱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독실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연세에 동문이라고 '2025년 연세대 달력'을 받아 보고 알게 된 것인데, 사실은 그 둘이 좀 놀랬습니다. 제가 위의 입학 시험을 봤던 건물이 연세대를 창설한 미국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이름으로 된 '언더우드 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를 지원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일본들을 전자장과 무기에 무너질 때 마다 천사 같은 분들이 나타나 저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알려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여기서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제가 하는 얘기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주요 사건들과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혹은 느끼시라고.

그리고 전에도 알려 드렸듯이 재정 지원 (독립운동 혹은 해방운동 자금) 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회 구좌로 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제가 주로 일하는 Wentworth Point 도서관이나 Rhodes 도서관에 현물로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저희 협회 구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 name: GOOD EM WAVES ASSOCIATION INCORPORATED
Bank: ANZ BSB: 012401 Account number: 179204918
ANZ Swift Code (해외에서 송금시): ANZBAU3M

하늘에서 준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인 이 일본인들이 적어도 이 지구를 수천년 이상 지배할 것이고 한국인은 대대 손은 완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일 시드니에서 '좋은 전자장과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시드니 및 호주 교민 분들에게,

제가 들도 보도 못한 것들로 영주권을 받아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단, 스케일이 훨씬 크고 훨씬 더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제 주장이 믿음이 가면, 저희 협회에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상기 협회 은행 구좌로 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어 장비를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받고 물건을 그냥 드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에 기부금을 내시고 방어 장비도 받아 가시면 저희 협회 제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본인을 대신해서 물건을 확보해서 간대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회 구좌에 입금하는 것이 부담되시면 제가 주로 일하는 '웬트워스 포인트 (Wentworth Point)' 도서관이나 '로드스 (Rhodes)' 도서관에 오셔서 저희에게 현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일 시드니에서 황규상 배상 